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ws.kr

뉴스제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2021년 5월 10일 (월) [제53호]

세종시교육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서 갑질 및 차별' 민연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행정직)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 10명 중 2명 갑질 인식, 4명은 교원 등 타 직종과 차별 경험



세종교육 공무원이 느끼는 직장 내 갑질과 차별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에게 개인 보호 청구 서류 준비 등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가 하면,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재택근무를 교사들에게만 허용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이 불합리를 당하는 곳이 공직 사회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현장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현상, 이하 세교노)이 제6대 노조 출범 100일을 맞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를 조

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조합원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224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2명은 관리자 등으로부터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또 4명은 교원 등 다른 직종과 차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과 인권침해 경험 응답자에게 유형을 묻은 결과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72%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처우, 폭언 등 비인격적 대응, 규정 위반 지시 순으로 답했다.

갑질의 구체적 사례로는 관리자 개인 물건 인터넷 주문, 개인 보호 청구 서류 준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회의 참여 강요, 정당한 연가 등 복무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업체를 미리 지정해 부당하게 계약을 강요하는 등 회계 관련 범

례에 벗어난 위법하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도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일부 부서장급 간부가 직원에 대한 질책과 핀잔을 일삼고 공개적 고함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흐리며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도 다반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갑질에 더해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이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소수인 행정실에 업무를 떠넘기거나,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교사에게만 재택근무를 허가하고 행정실은 전원 출근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직종 간 차별은 교육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학사가 많이 배치된 어떤 부서의 경우 소수 배치된 저경력 행정직을 보조자로 보고 하기 싫은 업무를 떠넘기거나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행정직을 헐뜯해 인격을 모독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직종 간 차별이 워선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이 컸다. 교육청 고위층은 장학사 등 전문직의 업무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해하고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등으로 엄격히 대한다고 다수가 답했다.

이에 대해 세교노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한 인권침해와 차별 대응에 대한 고충에도 교육청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이번 설문을 통해 여실히 표출된 것 같다"며, "최근 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교육청 스스로가 소속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교육청에 관리자의 갑질 예방 및 조치 강화, 행정직공무원 차별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교원 95% '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 반대

교사 전문성 훼손...어떻게 검증 없이 아이들 교육 맡기나

지난달 9일 국회 박찬대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 개설 시, 교사 자격 없는 기간제교사 임용을 허용하는 초·중·고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장교원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교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매우 반대 87.85%, 반대 7.02%)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문항(주관식)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급의 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

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 비판을 제기했다.

또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자격을 이수토록 준비시키는 게 타당', '한시적인 교과수업 담당이라면 현재처럼 강사직분이 맞음' 등의 의견도 피력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규교원과 교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조성은 갈 길이 멀고, 제도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자격 교원, 비정규직 양산부터 추진하는 나"며 "갑질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맡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국가적 책무부터 다해야 한다"며 "교원양성과 교원자격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진 기자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 교육이 미래는 10일~16일을 '제69회 교육주간' 로 선포하고 있다. 교총은 이 기간 교육주간 주제해설집 발간, 교육주간 사진·영상 공모전 등 이벤트 진행,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5일은 제40회 스승의 날이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작년처럼 별도 기념식을 생략하고, 14일 교육공로자 분야별 대표를 초청, 표창·간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총은 올해 교육주간 주제를 '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로 설정했다. 원격수업 등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교육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해지는 등 현재 교육환경이 아이들에게 위협하기 짝이 없다는 위기여파에서다.

하운수 회장은 특별 메시지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 교육이 미래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국가적으로도 적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더 큰 사회적, 교육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학력 격차와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근본대책보다는 단기 미봉책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초학력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서두르고, 정부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계와 학습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선생님

들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피자"고 호소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주간 주제 해설을 통해 "최근 10여년 간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PISA 테스트에서도 우리나라는 집단 간 학력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위 국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육주간 주제 선언이 우리 교육이 직면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미래교육의 바른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어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교육주간을 의미로 널리 알리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교육주간 사진 및 영상 공모전'을 4일까지 진행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은 교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교육주간에 발표한다.

/가금현 기자

INDEX

- ▶ 교육정책 ▶ 1면
- ▶ 전국종합 ▶ 2면
- ▶ 전국사회 ▶ 3면
- ▶ 전국교육청 ▶ 4면
- ▶ 전국종합 ▶ 5면
- ▶ 충청교육 ▶ 6면
- ▶ 충청교육 ▶ 7면
- ▶ 전국교육 ▶ 8면
- ▶ 전국종합 ▶ 9면
- ▶ 오피니언 ▶ 10면
- ▶ 오피니언 ▶ 11면
- ▶ 2층1호 전국백일장대회 ▶ 12면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주식회사 엔피에스

■ 정부조달물자판매(학교 및 관공서에 관련된 모든 가구류)

- ▲ 학생용사물함, 사무용가구, 학생용책걸상, 테이블(식탁), 수강용테이블, 의자, 파티션, 중역용 가구, 쇼파 등
- ▲ 협력사 : 서원퍼니처, (주)대우가구, (주)캠퍼스라인, 건영체어시스, (주)한길시스템, 체르마, 가구로 쇼파

■ 에어컨크리닝

TEL : 041- 668- 7668
TAX : 041-667-9087

충남 서산시 음암면 상흥2길 126-28 상가동